

GLOBAL ISSUE BRIEF

2026년 5월호

vol.34





Through a Global Lens

중동 사태와 국제 사회의 대응

서 중 해 KDI국제정책대학원

joonghae.suh@gmail.com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중동은 다시 한 번 세계를 뒤흔드는 지정학적·경제적 화약고가 되었다.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이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이 좁은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25%, 그리고 상당량의 액화천연가스(LNG)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 고속정 작전, 기뢰 살포 등으로 상업 선박의 통행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었다.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물류 비용 증가, 산업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중동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항공유 부족, 여행 산업 위축, 제조업 비용 상승 등 광범위한 경제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현대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비대칭전의 위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국제 사회의 에너지 안보, 공급망 취약성,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동 사태와 국제 사회의 대응¹⁾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 joonghae.suh@gmail.com

1. 비대칭전의 시대와 글로벌 충격

이번 중동 사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의 부상이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열세인 이란이 저비용·고효율 비전통 무기와 전술을 통해 강대국 연합의 우위를 교란하고 있다.

이란은 전쟁 초기부터 수만 대에 달하는 저가 드론(대표적으로 샤헤드 드론, 개당 2만5천~5만 달러)을 대량 투입했다. 이 드론들은 미·이스라엘의 고가 요격 미사일(대당 약 400만 달러)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스웜(swarm)’ 전술로 활용되었다. 소수의 탄도미사일을 드론으로 위장·혼합 발사하여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실제 미사일이 목표를 타격할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미사일 공격과 혁명수비대(IRGC) 고속정, 기뢰 살포를 병행하며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²⁾

이 비대칭 전략은 경제전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뿐 아니라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 모두를 미사일로 드론으로 공격하며 에너지 인프라와 경제 목표물을 집중 타격했다. 이는 걸프 국가들을 분쟁에 끌어들이고,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운송이 급감하고, 세계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³⁾

1) 이 글은 2026년 3월 30일~4월 30일 기간 동안 중동 사태와 관련한 외신기사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외뉴스분석팀과 외신기사 자원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2) Forbes US, “Asymmetric Warfare Becoming Decisive In The Iran And Ukraine Conflicts”, 2026.4.27

3) Forbes US, 2026.4.27; Daily Mail, 2026.4.29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드론과 무인 수상정을 활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를 약화시켰으며, 에너지·물류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칭 무기의 확산과 저기술 정밀 무기의 대량 생산이 현대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⁴⁾

이 비대칭전은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스리랑카 등은 항공유 부족으로 항공편을 대폭 감축하고, 연료 가격 급등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여행·경제 부문이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⁵⁾

로이터 통신은 전쟁 두 달 만에 신흥국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재정 부담 증가, 통화 약세, 무역 차질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보조금 확대가 재정 위험을 키우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들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⁶⁾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강하게 압박하며 장기 봉쇄 준비를 지시했으나, 이란은 바브 엘 만데브 해협 추가 위협 등으로 대응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더욱 증대시켰다.⁷⁾

4) Forbes US, 2026.4.27

5) Travelandtourworld, “South Korea Joins Australia, India, Japan... in an Intensifying Emergency”, 2026.4.29

6) Reuters, “Two months into Iran war, economic strain mounts across emerging markets”, 2026.4.27

7) Daily Mail, AOL, 2026.4.29

2. 국제 사회의 다양한 대응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 의존도와 경제 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호주는 소비자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연방 정부는 유류세를 3개월간 절반으로 인하하여 리터당 20센트 이상의 비용 절감을 제공하고, 대형 차량 도로 사용자 요금도 0으로 낮췄다. 빅토리아주와 태즈메니아주는 4월 한 달 또는 6월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며 주유소 이용 압박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다.⁸⁾

일본은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동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경제나 사회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대체 공급처 확보와 예비 예산 활용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⁹⁾

싱가포르에서는 민간 부문의 실용적 적응이 두드러진다. 물류 기업들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 속에서 일부 정리해고를 검토하는 한편, Loft Logistics와 SFS Pharma Logistics 등 전기차(EV) 도입 기업들은 오히려 인력을 확대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 등으로 에너지 비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DHL과 YCH Group도 차량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¹⁰⁾

한국과 싱가포르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통상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양국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FTA 개선 협상에 착수하고, 공급망·그린 경제·항공 정비(MRO)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¹¹⁾

8) 1News NZ, “Short weeks and free transport – the fuel crisis responses NZ could copy”, 2026.3.31

9) Kyodo News, Japan Today, “PM Takaichi opposes urging Japanese to save energy amid Middle East crisis”, 2026.4.27

10) Channel News Asia, “Singapore logistics firms mull cost-cutting moves amid energy crisis...”, 2026.4.29

11) Bernama, “S. Korea, Singapore Kick Off Negotiations To Upgrade Bilateral FTA”, 2026.4.28

유럽 국가들은 재정 지원과 세제 완화 중심으로 대응했다. 영국은 유류세 동결과 난방유 지원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연료 관련 세금 인하와 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계와 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¹²⁾

전반적으로 국제 사회는 단기적으로는 민생 보호와 소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다각화, 재생에너지·전기차 전환, 공급망 강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3. 한국 정부의 대응: 신속한 민생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

한국은 세계 6위권의 원유 수입국인 동시에,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세계 5위권의 석유제품 수출국이기도 하다. 한국은 원유에 대한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위기 발생 초기부터 포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외신은 다음과 같은 정책에 주목하였다.

-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¹³⁾**: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했다. 지원금은 카드·상품권 등으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 대응¹⁴⁾**: 국회는 여야 합의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이 예산에는 고유가 보조금, 취약계층 지원, 기업 피해 구제, 소비 쿠폰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공급망 안정화 및 에너지 수급 관리¹⁵⁾**: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4월 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마·이란 갈등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필품 공급 부족 우려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가격 상한제 도입(35년 만에 처음 검토) 등 수요 관리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마·이란 갈등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12) Travelandtourworld, 에너지 위기 관련 다수 보도, 2026.4.27

13) Aninews, "South Korea announces USD 4.12 billion cash aid...", 2026.4.17; 베트남뉴스, 2026.4.28

14) Reuters, "South Korea proposes \$17.3 billion extra budget...", 2026.3.31; AsiaOne, 2026.3.31

15) Sina Finance, "韩国将于本月底释放公共尿素储备...", 2026.4.17; Aninews, 2026.4.17

- **정치·사회적 결속과 안보 강화¹⁶⁾**: 이재명 대통령은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탄생 기념식에서 현 상황을 임진왜란에 비유하며 “외부 충격에 직면하더라도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비를 증액해 독자 방위력을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동맹국과의 문제는 “상호 존중, 상식, 그리고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상·외교 다각화 노력¹⁷⁾**: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와의 양자 FTA 개선 협상에 공식 착수했다. 공급망 안정화, 그린 경제, 항공 정비(MRO)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들과 대체 공급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국제통화기금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박사는 “중국의 부상과 트럼프 체제 아래 더욱 예측 불가능해진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 정책당국이 신중한 거시경제·안보 대응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4월 28일자)에서 평가하였다. 다만, 대미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4. 장기적 과제와 시사점

이번 중동 사태는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충격을 넘어, 국제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 안보의 다각화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세계 경제의 취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많은 국가는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가속화, 대체 공급원 확보(미국, 호주, 러시아 등), 전략적 비축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16) 人民网, “韩媒: 高调悼念抗日名将...”, 2026.4.29; Haberler, 2026.4.28

17) Bernama, “S. Korea, Singapore Kick Off Negotiations To Upgrade Bilateral FTA”, 2026.4.28

두 번째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이다. 요소·요소수, 비료, 석유화학 제품 등 핵심 중간재 공급 차질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농업, 제조업, 물류 전반으로 파급되었다. 국제 사회는 FTA 개선, 지역별 공급망 협력, 디지털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과제에 당면하였다.

세 번째는 비대칭전 시대에 대한 국방·안보 전략 재편이다. 저비용 드론과 미사일의 대량 활용, 비용 비대칭 전술은 기존 고가 무기 중심의 방위 전략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각국은 AI 기반 방어 시스템, 드론·무인체계 대응 능력 강화, 예산 재배분 등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과제에 당면하였다.¹⁸⁾

경제적으로는 신흥국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 악화, 통화 약세를 유발하며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¹⁹⁾

2026년 중동 사태는 현대 국제 사회의 핵심 취약점을 드러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 비대칭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위기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다각화, 공급망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다자 협력 체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가격 안정이 관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우선 전략으로 재정립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18) Forbes US, "Asymmetric Warfare Becoming Decisive In The Iran And Ukraine Conflicts", 2026.4.27

19) Reuters, "Two months into Iran war, economic strain mounts across emerging markets", 2026.4.27